

<번역 논문>

##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אלהים을 '신들'로 번역해야 하는가?1)

마이클 S. 하이저\*

이형원\*\*

### 1. 서론

히브리 성서 안에 엘로힘(אלהים)이란 명사가 이천오백 번 이상 나타난다는 점은 히브리 성서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sup>2)</sup> 이것들 중에서, 어형적으로 복수형인 이 명사는 천오백 번 정도 가까이 문법적으로 단수형 술어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물론 이 점은 엘로힘이 한 분 신(가장 두드러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해 자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אלהים의 단수성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אלהים이 신의 이름인 YHWH와 구문적으로 동격인 곳에서 발견되거나, אלהים이 정관사를 앞에 덧붙이고 있는(האלהים) 수많은 경우들이 있다. 사실 האלהים은 성서의 저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모든 다른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면, 신명기 4:35는 יהוה הוא האלהים אין עוד מלבדו: (“YHWH는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 필자는 로고스 성서 소프트웨어의 학술 편집자이다.

\*\* 침례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1) Michael S. Heiser, “Should אלהים with Plural Predication be Translated ‘God’?”, *The Bible Translators – Technical Papers* 61:3 (July 2010), 123-136.

2)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With Werkgroep Informatica, Vrije Universiteit Morphology* (Werkgroep Informatica, Vrije Universiteit; Logos Bible Software, 2006)에 따르면 2,248개 절에서 정확히 2,601회 나온다.

3) 이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앤더슨(Andersen)과 포브스(Forbes)가 히브리 성서를 구문론적으로 추적한 데이터베이스의 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Francis I. Andersen and A. Dean Forbes, *The Hebrew Bible: Andresen-Forbes Phrase Marker Analysis*; Logos Bible Software, 2005).

물론 אלהים과 האלהים이 성서 저자들에게 의해 사용된 방식에 예외들이 있다. “에굽의 신들”과 같이 אלהים을 복수형 구절들에서 연계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꽤 일반적이다. אלהים אחרים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신명기의 엄한 경고들은 잘 알려져 있다. אלהים은 때때로 이방 신들을 단체로 언급할 때 선택된 용어이다. 사사기 10:14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האלהים)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ESV). 그래서 אלהים과 האלהים이 둘 다 한 무리의 신들을 언급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히브리 성서 본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모두 명확하고 또 놀랄 일이 아니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방 신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אלהים과 האלהים이 복수적 의미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히브리 성서의 최종 형태를 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적인” 종교에 있어서 אלהים과 האלהים이 한 무리의 신적인 존재들로 간주되어 복수형 술어의 주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에 관한 논의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천상 회의(divine council)를 다루는 구절들에 집중된다. 시편 82:1과 시편 86:8에 언급되는 אלהים의 복수적 의미와 출애굽기 15:11의 복수형 엘림(אלי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의 모임(Isralite pantheon)에 관해 연속적으로 언급하는 예들이다.<sup>4)</sup> 이스라엘 종교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신의 복수성에 관한 이러한 진술들은 이스라엘의 천상 회의에 관련된 보다 많은 증거들을 אלהים이나

4) 시편 82:1과 6절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אלהים נָצַב בַּעֲדַת־אֵל בְּקִרְבֵּי אֱלֹהִים יִשָּׁפֵט (“하나님이 천상 회의에 서계시니, 신들 가운데서 그가 심판하신다”),

אֲנִי־אֲמַרְתִּי אֱלֹהִים אַתֶּם וּבְנֵי עֲלִיוֹן כְּלִבְכֶם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

시편 86:8의 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אֵין־כִּמּוֹךָ בְּאֱלֹהִים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5:11은 수사적인 의문문을 통하여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מִי־כִמּוֹךָ בְּאֱלֹהִים יְהוָה (“신들 중에 누가 당신과 같으리이까, 오 YHWH시여?”).

시편 89:7(89:6)도 포함되어야 한다. 문맥은 파생형 mem을 동반하는 אל(참고, 같은 구절의 כדור קדשים, בקהל קדשים)이 아니라 복수형 엘림(אלים)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참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E. Theodore Mullen,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Missoula: Scholars Press, 1980); Julian Morgenstern, “The Mythological Background of Psalm 82”,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4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39), 29-126; Mark S. Smith,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41-66; 그리고 Matitiahu Tsevat,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0-41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69-1970), 127-137.

ה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의 주어로 나타나는 히브리 성서 구절들을 연구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연구가 이 논문의 초점이다.<sup>5)</sup>

## 2. 복수형 술어의 주어가 되는 האלהים과 אלהים

최근의 구문론적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학자/번역자로 하여금 삼인칭 복수 정형 동사를 술어로 취하는 절의 주어가 되는 האלהים과 אלהים에 관해 조회할 수 있게 만들었다.<sup>6)</sup> 조회 결과로 이러한 구문론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여섯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다: 창세기 20:13; 35:7; 출애굽기 22:8; 사무엘하 7:23; 열왕기상 19:2; 20:10. 조회에서 술어의 한계를 완화시키면 더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האלהים과 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와 문법적으로 연관이 되는 네 경우가 더 있다: 창세기 31:53; 사무엘상 28:13; 열왕기상 12:28; 시편 58:12(영어 성서는 58:11). 이 경우들은 처음 조회에서 빠졌는데, 왜냐하면 절의 술어가 분사이거나 주어와 술어가 중문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האלהים과 אלהים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들은 변칙적인 문법 일치라는 범주들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용-무라오카(Jouon-Muraoka)는 가끔 통상적으로 단수 동사 형태가 소위 위엄을 강조하는 복수형과 일치되어 복수형이 된다고 언급한다.<sup>7)</sup> 확실한 바는, האלהים과 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빈번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예들이 술어를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을 사용하는 명백하게 유사한 성서 구절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에 저자가 가끔 번덕을 부려 기록상의 관계를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 3. 분석과 주석

5) 이 논문은 האלהים과 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의 주어로 나타나는 곳들의 특별한 구문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창세기 1:26을 다루지 않는데(בְּצִלְמוֹנֵינוּ אֲדָם בְּעֵשֶׂה אֱלֹהִים וַיֹּאמֶ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כְּצִלְמוֹנֵינוּ)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냐하면 그 본문의 אלהים은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אלהים이 ויאמר라는 단수형 동사의 주어이다. 복수형 נַעֲשֶׂה는 권고형 복수로서, 문맥상으로 볼 때 단수의 실체가 말한 것이다.

6) 이 연구는 앤더슨과 포브스에 의해 시도되었다. *The Hebrew Bible*.

7) Paul Jou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akamitsu Muraoka, trans. and rev.,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2003; 2005), 2:55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논문의 초점이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אלהים이나 אלהים이 정통적인 야웨주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상 회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에, 조회 결과로 위에서 소개된 구절들 중에 몇 개는 제쳐둘 수 있다. 특히, 열왕기상 19:2와 20:10은 둘 다 이세벨의 입에서 나온 진술들이기에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그렇게 하시기를(כִּהְיֵעֲשׂוּן לִי אֱלֹהִים)” 그녀가 기원하고 있다. 비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술들과 정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적인 종교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그리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열왕기상 12:28도 같은 종류인데, 화자가 성서 저자들에 의해 정통적인 야웨주의의 파괴자로 간주되었던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저자들은 여로보암이 그의 분리된 왕국에 거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인 유다로 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אֲשֶׁר הֶעֱלָה) 너희의 신들이로다(אֱלֹהֵי)”라고 선포했다(출 32:4, ESV)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머지 본문들은 성서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어디에도 이방인이나 배교자가 고려되고 있다고 추정하게 만드는 암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 3.1. 창세기 35:7

창세기 35:7은 흥미로운 본문이다. 그 구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 하나님(אלהים)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הִנְרָא) 하나님께(א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הִנְנָ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א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ESV에서 번역)<sup>8)</sup>

모호하지 않는 단수형 אל이 상응하는 단수 분사형(단순 수동형, 단순 능동

8) 이 논문에서 인용되는 영어 성서 본문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역자는 개역개정판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제시하는 차이점이나 강조점을 언급하고자 했다.

형)과 같이 두 번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러나 창세기 35:7에서는 본문이 이와 같은 문법적 일치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곧 벧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האלהים)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다(נלל)  
(נלל)(ESV에서 번역)

ה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 뜻밖이다. ESV의 번역자가 선택한 것처럼 האלהים을 단수적 의미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복수형 술어와 문법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האלהים을 단수형 신으로 간주하는 것을 지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1) 분명히 한 분 신이 고려되고 있는 바로 앞의 상황; (2) 이 구절 이외에서는, האלהים이 분명히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일 때, 항상 이방 신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sup>9)</sup> 만약 ה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로 판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을 고려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האלהים의 유일한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일반적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5:7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게 만드는 암시들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명확히 하려면 창세기 35:7의 배후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야곱 생애의 사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창세기 28:10-21에서, 야곱은 벧엘에서 꿈에서 분명히 성전탑 형태(ziggurat-type)로 보이는 건축물을 보게 된다(창세기 28:19). 야곱은 그 건축물의 꼭대기나 아니면 자기 곁에 계신<sup>10)</sup> YHWH를 보게 된다(창 28:13). 그는 또한 האלהים מלאכי("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건축물로 오르락 내리락

9) 사사기 10:14를 보라: בַּעַת צְרַחְתֶּם בְּמַה יִּשְׁעוּ לָכֵם יוֹשֵׁעַ לָכֵם בְּמַה יִּשְׁעוּ לָכֵם בְּמַה יִּשְׁעוּ לָכֵם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외쳐라; 너희의 고난가운데에서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ESV); 예레미야 11:12: יְרוּשָׁלַם וְזָבְקוּ אֱלֹהֵי־הָאֱלֹהִים אֲשֶׁר הֵם מְקַטְרִים לָהֶם וְהוֹשַׁע לֹא־יִוָּשְׁעוּ לָהֶם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ESV). 나는 אלהים에 붙어 있는 전치사 앞에 정관사도 붙어 있는 시편 86:8도 역시 포함시키고자 한다: אֱלֹהִים: וְאֵין כְּמִשְׁדֵּי אֱלֹהִים אֲשֶׁר יִשְׁעוּ לָכֵם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ESV). 사무엘상 4:8은 제외시켰는데, 그 말들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10) 창세기 28:13에서 그 모호함은 עָלַי(에 기인한다).

하는 것을 본다. 천상 회의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우가릿 문헌들에서 우주적 계급의 가장 아래 단계에 위치한 존재들로서, מלאכים이 “신들”(ilm)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는 מלאכים이란 용어와 אלהים 혹은 האלהים나 בני האלים을 명시적으로 동일화시키지는 않는다. 만약 창세기 35:7의 האלהים이 복수적 의미로 간주된다면, מלאכי אלהים이 논리적으로 볼 때 지시하는 바가 되고, 결과적으로 מלאכים과 אלהים을 동일화시키는 하나의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창세기 28:10-21이 창세기 35:7의 배후가 되는 데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5:7이 현안이 되고 있는 하나님/신들의 나타나심을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상황은 창세기 28장을 고려에서 제외시킨다.<sup>11)</sup>

이러한 논의는 우리를 둘째 가능성으로 이끄는데, 창세기 32장에 언급되는 야곱의 만남들이 신의 복수성에 관한 진술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만남보다 덜 알려진 것이 창세기 32:1에 소개되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מלאכי האלהים)이 그를 만난지라”(RSV)라고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을 본 후에 야곱은 “이것은 אלהים의 군대라”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천상 회의라는 모티프의 하나로서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우주적인 산”이라는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sup>12)</sup> 다시 말하여,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회의를 여시는 곳으로 간주했다.

창세기 32장(22-32절)의 보다 익숙한 사건은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다(창 32:24). 그 씨름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고 상처를 입는 것과 아울러 창세기 32:30의 고백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אלהים)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ESV). 성서의 저자들이 이 “사람”을 יהוה מלאך로

11) 창세기 48:3-4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אל שדי)이 내게 나타나사(נראה)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꿈을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축복 형식이 거기에 있음), 이 언어적 접점은 35장의 연대적 이해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순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 역시 창세기 28장을 35:1-7의 선행 사건으로 간주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데, 야곱이 자신이 만난 신을 높이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은 창세기 28장에서만 언급된다. 창세기 35:1-7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단을 쌓을 때 그와 관련된 한 사건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장소로 돌아올 때 단을 쌓도록 명령하신다(35:1). 야곱은 이것이 자기가 의도한 바라고 밝히고(35:3), 그 의도를 실천에 옮긴다(3:7). 여기 본문은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요구하게 되는 과거에 드러난 단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12) 참조: Richard J. Clifford, “The Tent of El and the Israelite Tent of Meeting”,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3 (1971): 221-227; Richard J.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간주했다는 점을 호세아 12:4-5(우리말 성서는 12:3-4)에서 호세아가 이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암시해 준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אלהים)과 겨루되(טרה) 천사(מלאך)와 겨루어(ויטר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ESV를 기초로 한 필자의 사역)

호세아는 이 특정한 מלאך를 אלהים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경 자료의 관점과도 일치하는데, 후자에서 하나의 특정한 사자가 신격화되고 YHWH와 동일화되고 있다. 창세기 48:15-16을 보라: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האלהים),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האלהים),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המלאך)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으며(יברך)<sup>13</sup>;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ESV에서 번역)

우리는 창세기 48:15-16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체를 מלאך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מלאך가 여기서 하나의 신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견해는 히브리 성서 전체에서 YHWH를 모든 천군들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는 관점과 부합되지 않는다. 히브리 성서에서 사자들은 피조물들이요 YHWH께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YHWH는 창조되지 않은, 높으신 주권자로 간주된다. 둘째 견해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합당해 보인다. 첫째로, 단수 동사 יברך이 두 존재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 복수형 동사가 사용되었다면, 이 둘을 구별하려는 저자의 시도가 명료했을 것이다. 둘째로, מלאך에 정관사가 사용된 점과 그것이 האלהים과 병행을 이룬다는 점은 특정한 מלאך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로, מלאך יהוה는 다른 곳에서 그 안에 YHW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출 23:20-23), 이 점은 מלאך יהוה와 YHWH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이다.<sup>14</sup> 하늘의 두 (거룩한) 권력들에 관한 고대

13) 이 복합적인 주어를 수식하는 술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사자의 정체에 관해 오해하지 않게 만드는 단수라는 점을 주지하라.

14) 이 사자에게 여호와(YHWH)의 “이름”이 있다는 점은 히브리 성서의 이름 신학에 비추어 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의 중추점들 중의 하나가 YHWH와 יהוה מלאך을 동일시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sup>15)</sup> 씨겔(Segal)은 YHWH를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 출애굽기 15:3에 두 권력 개념의 근거를 두기를 원하는 몇몇의 랍비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다. יהוה מלאך는 이 개념을 위한 주석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가 신인동형화된 YHWH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 정경의 최종 형태를 다듬은 유대인 편집자들이 복수형 술어 יהוה מלאך로 하여금 염두에 두고 있는 YHWH-사자라는 두 권력 구조와 함께 하도록 했다고 제안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인다.<sup>16)</sup> 그러므로 번역자가 복수형으로 번역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독자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3.2. 사무엘하 7:23

이 본문은 다윗 왕의 기도의 일부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신들이 가셔서(הִלְכוּ אֱלֹהִים) 직접 구속하여(לְפָדוֹתֵינוּ) 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פָּדָה)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필자의 사역)

이 본문은 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단수적 의미를 지니

---

때 중요하다. 참조: Jarl E. Fossum, *The Name of God and the Angel of the Lord: Samaritan and Jewish Concepts of Intermediation and the Origin of Gnosticism* (Tübingen: Mohr; Siebeck, 1985), Trygve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Lund: C. W. K. Gleerup, 1982); Helmer Ringgren, *Word and Wisdom: Studies in the Hypostatization of Divine Qualities and Func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Lund: C. W. K. Gleerup, 1947).

15) 이 주제에 관한 대표작은 Alan Segal의 *Two Powers in Heaven: Early Rabbinic Reports about Christianity and Gnosticism*이다(Leiden: E. J. Brill, 1977). 참조: Daniel Boyarin, “Two Powers in Heaven; Or, The Making of a Heresy”, Hindy Najman and Judith H. Newman, eds., *The Idea of Biblical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James L. Kugel* (Leiden: E. J. Brill, 2004), 331-370.

16) 나는 이러한 가능성을 나에게 제안해준 Ehud ben Zvi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35:7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야곱)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벤엘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형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때 거기서 신들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것도 이 번역을 강요하지 않기에, 창세기 35:7은 복수형 술어가 문체를 따르고 있는 단지 또 하나의 경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분명한 경우로 보인다. **אלהים**이란 문법적 주어와 일치하고 있는 복수형 정형 동사 형태는 **הלכו**이다. 이 동사는 바로 다음에 라메드 + 부정사 + 라메드 + 3인칭 남성 접미어(**לפדותו**)와 연결된다. 단수형 접미어는 복수형 동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 복수형인 **אלהים**이 단수(“하나님”)로 번역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그 접미어만으로는 복수형으로 번역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단수 접미어들이 복수형 선행사들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이 절의 끝 부분에서 단수형 정형 동사 형태 **פָּרִית**은 **אלהים**을 단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출애굽 사건을 다루는 보다 폭넓은 문맥(참고, 전술한 바 있는 출 3:6)은 그러한 결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보다 폭넓은 문맥이야말로 복수형의 가능성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다윗의 기도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업적으로 인정하지만(**מִמְצְרַיִם לָךְ מִמְצְרַיִם**), 다른 구절들은 그 역할을 **יהוה מלאך**라는 둘째로 신격화된 인물에게 맡기고 있다. 예를 들어, 사사기 2:1-5에서는 **מלאך יהוה**가 보김에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고 선포했다(2:1). 1인칭 문장을 사용한 것이 놀랍지 않은데,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낸 자처럼 간주하여 보낸 자의 위치에 실질적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히브리 성서에서 **יהוה מלאך**가 YHWH와 아주 밀접하게 동일화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자신의 이름이 이 사자 안에 있을 것이라고 YHWH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동일한 구절에서, 본문은 이 사자가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지켜주며 그 백성을 YHWH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YHWH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한다(출 23:20-23). 사사기 2:1-5는 그 사자가 자신의 바로 이 역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을 언급한다. 이전의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YHWH와 **יהוה מלאך**가 서로 독자적인 존재들로 함께 등장했다(출 3:1-6; 14:19; 14:24와 비교해 보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2 성전 시대의 유대인 해석가들이 **יהוה מלאך**에 기초하여 두 권력 사상을 만들고 YHWH를 용사로 간주하였기에, 사무엘하 7:23의 복수형 술어가 YHWH와 **יהוה מלאך** 둘 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7:23은, 이전의 창세기 35:7과

17) 참조: Bruce K. Waltke and Michael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303.

마찬가지로, אלהים과 האלהים이 이방의 신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적 의미를 지닌 경우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번역자는 복수로 번역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독자들은 또 다시 그러한 결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번역에 있어서 단수적, 복수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3.3. 출애굽기 22:6-8(우리말 성서 22:7-9)

6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7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האלהים) 앞에 가서(נָקַם)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8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하나님(האלהים) 앞에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אלהים)이 죄 있다고 하는 자(יִרְשִׁיעַ)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NJPS에서 번역, 히브리 성서의 구절 분류를 따름)

8절의 문법적 주어가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אלהים이지만, 신적 복수성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히브리 성서에 그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증거 본문으로 자주 제시되고 있다. 시편 82:1b의 복수형 אלהים이 신적인 존재됨을 인정하지 않는 몇 학자들은 출애굽기 22:6-8의 האלהים/אלהים을 인간들(이스라엘의 장로-재판장들)로 추정하고 그 추정을 시편 82:1b에 전가시켜 시편 기자가 천상 회의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뜻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출애굽기 22:8의 복수형 술어(יִרְשִׁיעַ)가 추론적으로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왜냐하면 확실히 이 구절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장은 출애굽기 22:8의 אלהים을 단수로 보느냐 복수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sup>18)</sup>

18) 비록 출애굽기 22:8-9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스라엘의 장로-재판장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해도, 이 결론은 시편 82편이 인간들로 구성된 회의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반대 견해를 제안하는 자들은 이 논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시편 89:7(영어 성서 89:6)을 누락시키는 것 같다: “무릇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구름 위에 있는 자(בְּשֹׁהַק)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בְּבָנֵי אֱלֹהִים)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이 시편에서 אֱלֹהִים בְּבָנֵי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이 점은 시편 82편에 천상 회의가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견해를 무마시키게 된다. 출애굽기 22:8-9를 시편 89편에 끼여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땅의 민족들 위에 권세를 지니고

그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본문의 문맥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 모세가 임명한 재판장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에 출애굽기 22:8의 אלהים을 인간들을 지칭하는 복수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8:13-14에서 발견된다: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אלהים)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16 그들이 사건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אלהים)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האלהים) 앞에서 그 백성을 대신하라; 그 사건들을 하나님(האלהים)께 가져오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 이들을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사건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 쉬우리라. 23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NJPS에서 번역)

이 사건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출애굽기 22:8이나 시편 82:1b의 אלהים

---

있다고 간주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점은 이방 민족들이 다른 신적인 존재들에게 넘겨졌다는 성서적 사상에 정면으로 대치된다(신 4:19-20; 32:8-9, 43[칠십인역과 쿨란 사본에서]). 시편 82편의 천상 회의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G. Cooke, “The Sons of (the) God(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6 (1964), 22-47; Lowell K. Handy, “Sounds, Words and Meanings in Psalm 8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7 (1990), 51-66; W. S. Prinsloo, “Psalm 82: Once Again, Gods or Men?” *Biblica* 76:2 (1995), 219-228; Morgenstern, “The Mythological Background of Psalm 82”, 29-126; Tsevat,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123-137. 신명기 32:8-9에 관해서는 Michael S. Heiser의 “Deuteronomy 32:8 and the Sons of God”을 참고하라: *Bibliotheca Sacra* 158 (2001), 52-74.

으로 쉽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겠지만, 이 문단에서 우리로 하여금 אלהים이나 ה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로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것도 없다. 이 문단에서 언급되는 אלהים이나 האלהים은 각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세가 임명한 사람들이 본문에서 실제로 אלהים이나 האלהים으로 불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 22:8에서 복수형 술어를 동반하는 אלהים을 한 무리의 인간적인 재판장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장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출애굽기 22:8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18:13-24가 신적인 복수성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반면에, 출애굽기 22:8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אלהים에 관해 언급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다. 출애굽기 21:2-6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אלהים)께로<sup>19)</sup>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개역개정판)

상전이 종의 귀를 뚫기 전에 그를 이스라엘의 장로-재판장들 앞에 데려가도록 명령받았고, 이 재판장들이 אלהים으로 불렸다는 주장이 어떤 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명료함에 있어서 장애들도 있다.

첫째로, האלהים이 단수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할 수도 있다. 종의 신분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화되었다. 둘째로, 만약 그 형태를 복수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서기관들이 그 복수형을 인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후대 편집자들이 분명히 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15:17에서 발견되는 유사 본문이 אלהים을 그 교훈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단어가 YHWH를 지칭하는 단수로 간주된다면 이러한 제외

19) NJPS 번역은 여기에 “재판관들에게”를 더하고 있다.

는 설명될 수가 없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제외되어야 했을까? 더욱이, 만약 **אלהים**이 복수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로 해석된다고 해도, 이러한 제외는 역시 난감하다. 만약 이 본문의 초점을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종의 신분을 입증해 주어야 한다는 점으로 간주한다면 어떤 손상이 있을까? 그러나, 만약 **אלהים**이 신들을 지칭하는 복수적 의미로 의도되었다면 신명기 저자의 입장에서 그 단어를 제외시킨 것이 이해할 만하다. 칠십여 년 전에, 사이러스 고든(Cyrus Gordon)은 신명기에서 그 단어를 제외시킨 것이 신학적인 의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sup>20</sup> 고든은 출애굽기 21:6의 **אלהים**이 드라빔(*teraphim*) 같은 “가족 신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가부장적 문화에서 어떤 종을 가정에 데려오는 일은 조상들의 동의와 승낙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신명기적인 편집이 이루어질 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의 투쟁의 결과로서 생략되었다. 다양한 신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복수형으로 간주하는 것만이 이와 같은 결정을 명백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본문이 오해될 수도 있다는 신명기 저자의 두려움을 무시한다면, 어떤 것이 출애굽기 21:6과 또한 출애굽기 22:8의 **אלהים**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이 두 구절들을 고대 근동의 자료들과 비교한 펜샴(F. C. Fensham)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sup>21</sup> 펜샴은 귓츠(A. Goetze)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가운데, 이 두 구절들이 에스누나의 법들(*the Laws of Eshnunna*)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후자의 법전은 성전 문에서 맹세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맹세가 신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출애굽기의 두 구절의 **אלהים/אלהים**이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론은 출애굽기의 이 구절들에 사용되고 있는 **אלהים/אלהים**에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는 자주 신적인 임재, 신의 현현의 장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덜함(Durham)의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 지지를 얻게 되었다.<sup>22</sup> 요즘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덜함을 지지한다. 표제어 **קרב**가 어떤 형태로든 신적인 존재에 동반되는 술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을 그 표제어의 동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스물 세 개의 경우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열아홉 번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난다.<sup>23</sup> 결과적

20) Cyrus H. Gordon, “אלהים in Its Reputed Meaning of Rulers, Jud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4 (1935), 139-144.

21) F. Charles Fensham, “New Light on Ex 21:6 and 22:7 from the Law of Eshnunn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2 (1959), 160-161.

22) James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3 (Dallas: Word, 2002), 326.

23) 이 연구는 앤더슨과 포브스에 의해 시도되었다. *The Hebrew Bible*. 앤더슨과 포브스의 데이터베이스는 의미론적 코리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연구를 “가까이 가다”가 신을 지칭하는 명사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 있었다.

으로, 그 해석자는 אלהים/אלהי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단수적 의미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하나의 결론을 제공하였지만, 또 다른 논의를 열어놓게 된다.

비록 단수적 의미의 해석이 번역자에게 하나의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출애굽기 22:8에서 “가까이 하다”(קרבו)라는 단어가 신의 현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복수형 술어이기에도 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로 간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회막과 성막과 우가릿의 엘(El)의 장막과 그의 천상 회의 사이에 아주 긴밀한 유사점이 있다는 점이 이스라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sup>24)</sup> 우가릿의 엘의 장막은 천상 회의로부터 법령들이 전해진 장소인데, 신약성서는 천상의 무리들(천사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전한 것으로 묘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전통을 포함하고 있다(행 7:53; 갈 3:19; 히 2:2).<sup>25)</sup> 만약 출애굽기 22:8의 종이가 אלהים 앞에 서도록 실제로 회막이나 성막으로 데려가졌다면,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YHWH와 그의 회의에 참여한 이들이 승낙하거나 승낙하지 않는다는 어떤 표징을 전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덜함은 그 결정이 우림과 둠땀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정했지만, 본문은 사실상 그 절차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sup>26)</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어를 복수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성을 제공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 3.4. 창세기 20:13과 창세기 31:53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아비멜렉을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된다. 아브라함의 계략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된 후에, 그는 자신의 거짓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아브라함은 20:13에서, “하나님(אלהים)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התעו)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었노라’”라고 말한다.

‘두루 다니게 하다’는 동사가 복수형이라는 점이 몇 가지 질문들을 야기시킨다.<sup>27)</sup>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다신론적 개념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24) 참조: Clifford, “The Tent of El”, *The Cosmic Mountain*; Clifford, 221-227.

25) 아마도 신명기 33:1-2와 시편 68:17이 이 전통의 배경일 것이다.

26) Duham, *Exodus*, 326.

27) 사마리아인들의 오경은 복수형 התעו 대신에 התעו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비록 더 어려운 본문을 원본으로 간주한다는 원칙(lectio difficilior)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된 형태도 하나의 가

가? 창세기 20:13은 우르를 떠나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소명이 천상 회의를 내포하는 일종의 “예언자적 소명 이야기”로 암시하는 것인가? 저자에 의해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YHWH의 추종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일까? 다시 말해서, 그 복수형은 아브라함이 어떤 다신론자에게 “다신론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의 예로 사용한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창세기 20:13의 이 진술은 창세기 12:1의 YHWH로 말미암은 아브람의 소명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창세기 20:13의 복수 동사 형태가 복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해석자가 무시해 버려야 하는가? 이 본문은 복수형 술어가 신적인 복수성을 지칭하지 않는 출애굽기 22:8과 유사한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다룰 때, 창세기 12:1의 홀로이신 신에 의한 아브람의 소명이 신적 복수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언자적 소명을 내포하는 천상 회의 장면들에서, 소명이 YHWH에 의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복수성을 발견하게 된다.<sup>28)</sup> 가장 분명한 예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3장인데, 여호와와 사자와 YHWH가 둘 다 떨기나무 안에 있다. 창세기 20:13의 복수형도 동일한 상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천상 회의 장면이 복수형 술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충분한 세부 사항들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0:13의 יְהוָה도 복수형 동사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단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선택 안들이 어느 쪽이든 아브라함을 YHWH의 예배자로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나 아브람/아브라함 이야기의 보다 폭넓은 상황은 사안들을 복잡하게 만든다. 창세기 12:1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1:31을 보면, 창세기 12:1에서 신적인 소명이 있기 전에 데라가 아브람, 사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우르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데라, 아브람, 그리고 나머지는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서 거류하게 된다. 데라는 여호

능성 있는 원래 본문으로 고려해야 한다.

28) Min Suc Kee,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3 (2007), 259-273; Edwin C. Kingsbury, “The Prophets and the Council of Yahwe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3 (1964), 279-286; Max E. Polley, “Hebrew Prophecy within the Council of Yahweh Examined in Its Ancient Near Eastern Setting”, Craig D. Evans, William W. Hallo, and James B. White, eds., *Scripture in Context: Essays in the Comparative Method* (Pittsburgh: Pickwick Press, 1980), 141-156; Christopher R. Seitz, “The Divine Council: Temporal Transition and New Prophecy in the Book of Isa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9:2 (1990), 229-247.

수아 24:2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다신론자로 간주되고 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עבדו)’”(ESV에서 번역)

복수형 동사(עבדו)와 복수형 명사 “너희의 조상들”이 흥미롭다.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 묘사 중에서 아브람을 제외하고 데라와 나홀만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주장하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본문은 이와 같이 자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다. 본문을 가장 솔직하게 읽는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소명을 받을 당시에 그도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으로서 그 복수형 동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אלהים을 주어로 취하는 복수형 술어가 있는 또 하나의 경우인 창세기 31:53을 소개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 구절 역시 아브람, 나홀, 그리고 데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אלהי), 나홀의 하나님(אלהי),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אלהי)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ישפטו)”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ESV에서 번역)

논의점이 되는 것은 복수형 동사인 ישפטו와 또 이 구절과 여호수아 24:2에서 데라,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해 말하고 있는 바와의 연관성이다. 세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1) 연계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אלהים은 각각 단수형 의미로 읽혀져야 한다. 요점은 각 개인에 의해 섬겨진 최고신이 증인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둘이나 아마도 세 신들이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복수형이 이해가 가고,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을 YHWH 숭배자로 묘사하는 것이 손상되지 않는다. (2) 저자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단수적 의미의 אלהים과 나홀과 데라와 관련한 복수적 의미의 אלהים 사이의 대조를 독자가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견해는 추측컨대 저자에게 수사학적-신학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복수

적 술어의 사용이 이해가 되며 저자가 아브라함을 오직 YHWH만을 섬기는 자로 묘사한다. (3) אֱלֹהִים이 사용되는 각 경우는 복수적 의미로 읽혀져야 한다. 그러면 본문의 요지는 각 인물의 신들이 증인들로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수형 술어가 요구되게 된다. 아브라함의 신들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은 창세기 20:13의 이해와 일치될 수 있게 되는데, 그의 전후 시대의 예언자들처럼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을 때에 천상 회의에 참여한 이들과의 신현적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31:53의 마지막 절에서 잠깐 언급되는 “이삭이 경외하는 이”는 위의 가능성들의 적합성의 순위를 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YHWH가 아닌 어떤 한 신이라고 간주하지만, 대부분은 그 구절을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별명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9)</sup>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본문인 창세기 31:42에서 신과 연관된 동사들이 단수형이다. 어쨌든, 창세기 31:53은 야곱이 오직 한 신, 이삭이 경외하는 이에 의해 맹세를 하고 있기에, 위의 해석적 가능성들 중에 셋째 것, 즉 אֱלֹהִים이 언급되는 각 경우들을 복수적 의미로 간주하는 견해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 3.5. 시편 58:12(우리말 성서 58:11)

히브리 성서에서 천상 회의를 소개하는 대표적 본문으로 간주되는 시편 82편에 익숙한 독자들은 그것이 시편 58편과 사상이나 용어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시편 82:1-5에서 천상 회의의 אֱלֹהִים은 민족들을 잘못 다스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단수적 אֱלֹהִים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다스리는 역할은 신명기 4:19-20; 32:8-9에서 주어졌다.<sup>30)</sup> 시편 82:2-5에서 그와 같은 비난이 언급된 후에, 그 신들은 인간들처럼 죽도록 선고가 내려졌다(82:6-7). 선고가 내려진(82:8) 바로 후에, 시편 저자는 외친다: “오 하나님(אֱלֹהִים), 일어나소서, 땅을 심판하소서!(שֹׁפֵט הָאָרֶץ)” 단수 권고형(קוּמָה “일어나소서!”)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편 82:8의 אֱלֹהִים이 단수적이라는 것을 오해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단수적 אֱלֹהִים과

29) M. Köckert, “Fear of Isaac”, Karel van der Toorn, 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2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330-331.

30) 신명기 32:8-9와 43절은 신명기 4:19-20; 17:3; 29:25; 시편 82편 그리고 시편 89:6-9(5-8)과의 문맥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참조: Heiser, “Deuteronomy 32:8 and the Sons of God”, 52-74; Heiser, “Monotheism, Polytheism, Monolatry, or Henotheism? Toward an Assessment of Divine Plurality in the Hebrew Bible”, *Bulletin of Biblical Research* 18:1 (2008), 1-31.

심판 아래 있는 그 אלהים을 직접 대조시키고 있다.

시편 82편의 이러한 대조는 시편 58편의 몇 가지 사안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만약 58:2(우리말 성서 58:1)의 אלהים을 אלים으로 수정한 것을 인정한다면,<sup>31)</sup> 그 시편의 처음 두 절은 시편 82편처럼 민족들을 다스리던 신들을 거부하는 수사적 표현들로 시작한다: “너희 신들아(אלים), 너희가 정의를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인자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라.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그러므로 시편 58:2는 시편 82편에서 복수적 אלהים에 대하여 언급된 죄목들을 다시 설명해 준다.

독자는 두 시편들의 유사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시편 58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국의 참된 주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세우시도록 시편 저자가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시 58:12[11]) אלהים이 복수 분사형의 주어로 나타난다. 58:2(1)에서 신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시편 82편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편 82편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대조가 시편 58:12(11)에서도 시편 저자에 의해 의도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שֶׁפֶטִים בְּאָרֶץ אֱלֹהִים는 복수적 술어(“분명히 땅을 심판하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단수적 의미의 אלהים과 연관지어 번역해야 한다. 단수형의 번역이 요구된다는 점은 시편 58:7a(6a)에서 시편 저자가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을 통하여, 단수적 אלהים께서(58:7b[6b]에서는 YHWH) 신들에 의해 조정을 받은 악한 자들을 엄하게 심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시편 저자가 신들을 비난하고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후에, 땅을 심판할 신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게 된다.<sup>32)</sup>

### 3.6. 사무엘상 28:13

31) 이러한 수정과 이어지는 자모음 조정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Marvin E. Tate, *Psalms 51-100*, WBC 20 (Dallas: Word, 2002), 82; Mitchell Dahood, *Psalms II: 51-100*, Anchor Bible 16 (New York: Doubleday, 1968), 57.

32) 시편 58:12의 번역을 돕기 위해 시편 82편을 참고하도록 하는 데는 시편의 다른 곳들에서 단수적 אלהים이 온 땅의 만국들을 심판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도 도움을 준다. 시편 67:4는 “당신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בִּיתִּשְׁפֶט עַמִּים מִיָּשׁוּר)라고 단언하고 있고, 창세기 18:25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הֲשֵׁפֵט כָּל־הָאָרֶץ?)도 같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시편 58:12의 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의 신들로 이해하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אלהים이 복수형 술어의 주어로 언급되는 마지막 경우가 사무엘상 28:13이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상 회의와는 무관하지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무엘상 28:13은 엔들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죽은 예언자 사무엘을 불러 오도록 사울에게 요청을 받은 그 영매는 אֱלֹהִים מִן־הָאָרֶץ라고 외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이 본문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신들을 보았다” 혹은 “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신/한 אֱלֹהִים을 보았다.” 만약 그 영매가 한 단체를 보고난 후에 죽은 사무엘에게 집중하게 되었다면 전자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독자의 주관에 너무 가미하는 것이다. 후자는 복수형 분사가 형태상의 일치의 경우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울의 이어지는 질문들은 본 논의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의 관심이 당연히 오직 사무엘에게만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אֱלֹהִים을 복수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이 이야기의 초점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결론

복수형 술어의 주어가 되는 אֱלֹהִים이나 האלהים이 문법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흔하지 않은 경우들이 몇 개의 흥미로운 구절들에 나타난다. 문법적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אֱלֹהִים을 이방 신들로 지칭하거나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었을 경우들을 제외하면, 이와 같은 여러 경우들이 אֱלֹהִים이나 האלהים을 복수적 의미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상 회의의 실재를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이러한 결론을 강요하지는 않고, 따라서 복수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 있는 선택이지,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비록 명분이 있지만, 번역자는 어떤 번역이 의도된 청중에게 가장 명확성을 제공하는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With Werkgroep Informatica, Vrije Universiteit Morphology*, Werkgroep Informatica, Vrije Universiteit; Logos Bible Software, 2006.

Andersen, Francis I. and Forbes, A. Dean, *The Hebrew Bible: Andresen-Forbes Phrase Marker Analysis*; Logos Bible Software, 2005.

Boyarin, Daniel, “Two Powers in Heaven; Or, The Making of a Heresy”, Hindy Najman and Judith H. Newman, eds., *The Idea of Biblical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James L. Kugel*, Leiden: E. J. Brill, 2004, 331-370.

Clifford, Richard J., “The Tent of El and the Israelite Tent of Meeting”,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3 (1971), 221-227.

Clifford, Richard J.,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Cooke, G., “The Sons of (the) God(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76 (1964), 22-47.

Dahood, Mitchell. *Psalms II: 51-100*, Anchor Bible 16. New York: Doubleday, 1968.

Durham, James I., *Exodus*, WBC 3, Dallas: Word, 2002.

Fensham, F. Charles, “New Light on Ex 21:6 and 22:7 from the Law of Eshnunn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8:2 (1959), 160-161.

Fossum, Jarl E., *The Name of God and the Angel of the Lord: Samaritan and Jewish Concepts of Intermediation and the Origin of Gnosticism*, Tübingen: Mohr; Siebeck, 1985.

Gordon, Cyrus H., “אלהים in Its Reputed Meaning of Rulers, Judg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54 (1935), 139-144.

Handy, Lowell K., “Sounds, Words and Meanings in Psalm 82”,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7 (1990), 51-66.

Heiser, Michael S., “Deuteronomy 32:8 and the Sons of God”, *Bibliotheca Sacra* 158 (2001), 52-74.

Heiser, Michael S., “Monotheism, Polytheism, Monolatry, or Henotheism? Toward an Assessment of Divine Plurality in the Hebrew Bible”, *Bulletin of Biblical Research* 18:1 (2008), 1-31.

Jouön, Paul,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akamitsu Muraoka, trans. and rev.,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2003; 2005.

Kee, Min Suc,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ournal for the Study of*

- the Old Testament* 31:3 (2007), 259-273.
- Kingsbury, Edwin C., "The Prophets and the Council of Yahwe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3 (1964), 279-286.
- Köckert, M. "Fear of Isaac", Karel van der Toorn, ed.,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2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 Mettinger, Tryggve N. D.,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Lund: C. W. K. Gleerup, 1982.
- Morgenstern, Julian, "The Mythological Background of Psalm 82", *Hebrew Union College Annual* 14,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39, 29-126.
- Mullen, Theodore, *The Divine Council in Canaanite and Early Hebrew Literature*, Missoula: Scholars Press, 1980.
- Polley, Max E., "Hebrew Prophecy within the Council of Yahweh Examined in Its Ancient Near Eastern Setting", Craig D. Evans, William W. Hallo, and James B. White, eds., *Scripture in Context: Essays in the Comparative Method*, Pittsburgh: Pickwick Press, 1980, 141-156.
- Prinsloo, W. S., "Psalm 82: Once Again, Gods or Men?" *Biblica* 76:2 (1995), 219-228.
- Ringgren, Helmer, *Word and Wisdom: Studies in the Hypostatization of Divine Qualities and Func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Lund: C. W. K. Gleerup, 1947.
- Segal, Alan, *Two Powers in Heaven: Early Rabbinic Reports about Christianity and Gnosticism*, Leiden: E. J. Brill, 1977.
- Seitz, Christopher R., "The Divine Council: Temporal Transition and New Prophecy in the Book of Isaia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9:2 (1990), 229-247.
- Smith, Mark S.,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 Israel's Polytheistic Background and the Ugaritic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Tate, Marvin E., *Psalms 51-100*, WBC 20, Dallas: Word, 2002.
- Tsevat, Matitiah, "God and the Gods in Assembly",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0-41,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1969-1970.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ichael P.,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